

기관 돋보기 | 괴산군장애인복지관

‘사람이 있어 행복한 복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활발한 상호 협력을 통해 행복한 장애인복지관을 실현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괴산군 괴산읍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 국지체장애인협회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은 2013년 설립되어 ‘사람이 있어 행복한 복지’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조사연구를 진행해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항목에서 모두 A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충북도내 장애인복지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은 괴산군내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으로 문화여가를 비롯한 직업, 보호,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중증장애인 보호를 통한 가정 내 양육부담 감소와 보호자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괴산군과 협업하여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해 아동 청소년 발달재활 사업을 통해 언어발달,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이동권 확보가 어려운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가사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매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



괴산군장애인복지관 전경.

일 평균 150명 이상 이용...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힘써

‘이음 카페’ 운영...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의 장 제공 눈길

회, 문화예술진흥원 등의 외부자원 확보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및 충북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일평균 150명 이상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절기행사, 무료급식나눔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봉사자들과 함께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여율이 감소함에 따라 비대면 도시락 배달 및 보장구 대여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로 대체하여 지원하고 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의 특화사업으로는 농촌 지역 특성상 64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6%로 노년 장애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등 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여가지원, 인문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기차고 긍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장애인 아동 청소년이 관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해당 복지관이 유일한 장소로 미술치료, 요리교실, 방학교실 등 장애인 아동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문화적 고립과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창출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군의 지원을 받아 2020년 9월 군청 내 ‘이음 카페’를 설립해 바리스타 양성교육 지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음 카페’에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일자리 개발과 자립능력 향상에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바리스타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 참여

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회 참여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내 학교들과 연계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사회 어울림 운동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변화와 올바른 인식 확신을 위한 계기가 됐다.

정효선 관장은 “우리 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관내 이용자들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권 확보와 욕구를 충족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사업 개발은 필수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만연해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인식개선 활동과 권익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지역 내 장애인복지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새로운 농촌지역 복지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복지 변화와 트렌드에 발맞춰 관내 이용자와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통합의 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미술공예 프로그램에 참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회관 준공 및 개관식



충북도장애인회관 개관식에서 이시종 충북지사, 이의영 충북도의회 의장, 변창수 충북장애인단체 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충북도 장애인회관 개관, 사무·교육 공간 마련

청주 사천동 밀레니엄타운 내 위치... 14개 장애인단체 입주

충북지역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충북장애인회관이 지난달 31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이의영 충북도의회 부의장, 변창수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한 장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0년 10월 착공한 장애인회관은 도비 9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밀레니엄타운 내 자리를 잡아 대지 3천300㎡에 연면적 2천966㎡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졌다.

장애인회관에는 사무실, 정보화실, 다용도실, 회의실 등 주요시설을 갖췄으며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해

14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했다.

앞서 도는 장애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충북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SK하이닉스 청주지원담당 이일우 부사장은 이날 장애인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부사장은 지난 2월 청주시내 산재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신축 회관으로 이전하는 비용 일부를 기탁했다.

KOK 스타디움 송강용 대표와 이현도 충북본부장도 이날 충북장애인회관의 운영을 위해 축하말씀을 하며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충북스마트쉼센터와 함께하는 미디어 나눔버스

연말까지 도내 9곳 방문 운영... 스마트폰·미디어 체험 등 제공

충북스마트쉼센터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해 이달 18일부터 12월까지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유아~고령층)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는 미디어 체험이 어려운 대상을 찾아가서 뉴스, 라디오 등을 직접 제작하고 앵커, 기자, 인터뷰, 기상캐스터 등의 역할을 나눔버스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체험존을 말한다.

운영대상은 유아부터 성인까지이며, 도내 유치원, 어린이집, 돌봄센터, 아동센터 등 9곳을 방문해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주요내용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들이 사용목적에 맞게 스마트폰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애니메이션 화면을 보면서 더빙 체

험도 하고, 성우가 된 것처럼 목소리를 연기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미디어 체험도 할 수 있다.

충북스마트쉼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진행하면서 충북도민들이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를 더욱 슬기롭게 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안활동 프로그램으로 이번 기회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하고 성숙한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충북도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스마트쉼센터에서는 예방교육, 가정방문상담, 힐링캠프, 개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및 상담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전화 1599-0075 또는 충북스마트쉼센터(043-211-8275)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를 지키는 백신은 사랑의열매에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한 해 2천9백여개 협력기관과 함께 1만8천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지원금액 208억2천2백만원

지원대상		사업분야	
아동/청소년	4,187백만원	기초생계	13,078백만원
노인	4,082백만원	교육/지원	877백만원
장애인	1,463백만원	주거/환경개선	1,011백만원
여성/다문화	745백만원	보건/의료	1,495백만원
위기가정	4,074백만원	지역사회	5,021백만원
해외/복합/기타	1,250백만원	심리정서	752백만원
		사회적돌봄강화	3,008백만원
		소통/참여확대	435백만원
		문화격차해소	166백만원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배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 상담 043-238-9100 | 지원 상담 043-238-9200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어요”

음성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도전

음성군이 ‘아동이 행복한 도시, 희망이 꽃피는 음성’을 비전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음성군에 따르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6개 추진영역과 2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된 ‘2차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2025년까지 진행한다.

주요 전략사업은 유아전용시설인 오감만족 새싹체험장 운영,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휴먼·음주 예방교실, 공동육아아동터 운영,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장애아동수

당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등이다.

군은 지난해 아동과 보호자, 아동기관 관계자 등 1827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조사를 했고 온라인 군민 토론회와 아동 요구 확인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아동권리교육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이 같은 다양한 사업 추진

을 토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도전한다.

2018년 4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4년간 펼친 다양한 아동친화정책 이행 실적과 2차(2022~2025년)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등이 담긴 심의자료를 지난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했다.

상위단계 인증은 아동친화도시 신규 인증 후 4년간의 변화와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올해 안에 결정된다.

음성군, 거동 불편 독거노인 처방 약 배송 서비스 제공

도내 유일 민-관 협업, 재택치료자 처방 약 배송

음성군은 만 65세 이상 재택치료자 중 동거인이 없고 거동이 불편해 의약품 수령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처방 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 2월부터

지원봉사센터, 자율방범대를 비롯해 9개의 단체와 민관 원팀을 구성하고 동거인이 없어 처방 약 수령이 어려운 재택치료자에게 처방한 약 배송 봉사를 해 1천여 명의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 6월부터는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변경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은 확진까지 된 상태에서 직접 약국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과 자원봉사센터, 자율방범대 그리고 봉사자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거동 불편 독거노인 재택치료자에 대한 처방 약 배송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처방약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재순 자치행정과장은 “생업에 바쁘신 상황에도 어르신들을 위하여 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 지원사업 추진

홀몸어르신 일상 케어 AI돌봄로봇 ‘생이’ 보급

청주시는 20일 돌봄로봇 사용교육을 시작으로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난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3천여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무연

고, 가족단절, 지적장애가 있는 홀몸어르신 중 인지능력과 기본정력을 가진 어르신으로 선정됐다.

보급된 돌봄로봇은 AI기능을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말동무 역할 외 운동, 치매예방을 위한 퀴즈풀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케어한다.

돌봄로봇은 50센티, 850g 어린아이의 크기로 어르신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청주시 대표 캐릭터 ‘생이’의 모습으로 제작됐다.

한편 청주시는 이날 중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로봇제조업체(주요엠에스)와 함께 청주시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생활지원사, 전담사회복지사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AI 돌봄로봇 실무자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받은 생활지원사는 어르



청주시 AI돌봄로봇 ‘생이’

신들에게 로봇 사용법을 알려주고, 로봇의 활용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선발된 위촉위원 8명 중 6명이 대학생, 청년농업인, 청년 CEO 등 청년위원으로 구성될 일 자리·주거·복지·문화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회 출범

전문가·청년 등 위촉위원 8명 구성... 의견 적극 반영 기대



진천군은 14일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진천군은 14일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진천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로, 진천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6명과 공개모집·기관·단체 추천으로 모집한 전문가·청년 등 위촉위원 8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진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다양한 청년정책 시행에 관한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진천군이 지난달 28일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단 17명 구성

6개 분야 31개 사업... 2025년까지 추진 인구 17% 해당하는 아동 정주여건 개선

진천군이 지난달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내부 조정기구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17명으로 구성했다.

군은 지난 2년간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2020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연구용역(2021년)을 진행하고 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학부모, 아동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통해 즐겁게 놀 권리,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누

릴 권리,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좋은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 등 6개 분야 31개 사업을 선정해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한다.

조경순 부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시는 모든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아동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난해 12월 심의 자료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충주시,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협약

민간기업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제도 활성화



충주시는 7일 충주상공회의소, 충주시에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충주시장애인체육회와 충주상공회의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는 7일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력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제도는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직장 운동선수를 고용하는 제도로 위험 직종 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와 장애인 선수의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협약에 따라 충주상공회의소에서는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제도에 대한 홍보를 맡고 충주시에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 선수 선발 및 훈련을 담당하게 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는 기업의 선수 채용에 대한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회의에 이어 충주시 최초로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한 (주)천보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동복지시설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

충주시, 40개 시설에 안전한 아동 돌봄환경 지원

충주시는 15일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200만원씩을 지급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종사자와 이용 아동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재난지원금 8000

만원(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했다.

지원금은 아동양육시설 ‘진여원’, 아동 공동생활시설 ‘사라의 집’, ‘자혜원’, 아동방과후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35곳, 다함께 돌봄센터 2곳 등 총 40곳의 아동복지시설에 각각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지원금은 전문 방역업체 방역, 방역물품 구입, 운영비 등 아동 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시는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컴퓨터, 에어컨, 마스크, 손세정제, 항원검사키트 등 필요 물품 및 한시적 인력 지원으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이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최소 3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최소 3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영동군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양희원 충남대병원 교수 협력의사 위촉... CIST 등 진행

영동군은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상담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희원 교수를 협력의사로 위촉했다.

이번 협력의사 위촉은 지난 2015년 11월 체결한 영동군·충남대학교병원 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기검진을 시행해 왔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의 전문의를 위촉해 지역 사회의 치매극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희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매년 추천과 협의를 통해 전문의 1명을 재위촉하게 된다.

협력의사는 매주 화요일 영동군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치매 선별검사(CIST)를 통해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신경심리평가와 임상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치매진단여부를 결정해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희원 교수가 협력의사 위촉장을 받고 박세복 군수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치매안심센터(043-740-5946)로 문의하면 된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이번 협력의사 위촉을 통해 군민 모두

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영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치매 조기 검진,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취약층 주거 안정... 옥천 행복주택 '첫 삽'

삼양리 일원 총 200세대 규모

2023년 12월 말 준공 예정

옥천군이 청년들과 취약계층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지난달 31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옥천읍 삼양리 232-2번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한 행복주택 기공식이 김재중 군수와 임만재 군의회 의장, LH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은 지난 2018년 12월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하고, 이듬해 9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했다. 이어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 끝에 4년 만에 첫 삽을 떴다.

행복주택은 308억 원을 투입해 옥천읍 삼양리 232-2일원 7천095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인 행복주택 조감도.

m² 용지에 200세대 규모(2개 동, 15층)로 짓는다. 오는 2023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올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 분양은 청년 78가구(21m²), 신혼부부 84가구(36m², 4m²), 고령자 주거 취약계층 38가구(26m²)다. 행복주택 예정지는 반경 500m 내외에 공용버스터미널, 매월 5일 10일마다 열리는 전통 재래시장, 옥천중학교, 옥천여중학교, 옥천고등학교, 옥천군청, 충북도립대학교가 위치해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군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점차 감소추세인 군의 인구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확대

5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영동군이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군은 그동안 9~24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건강증진비를 차상위계층까지

내달부터 지급한다.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는 지역 청소년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미용실 이용, 목욕탕 이용, 건강보조제(비타민, 칼슘제, 성장발육제 등) 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매월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달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완료했다.

한편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

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수혜자는 기존 300명에서 450명으로 150명이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친환경 유기농산물 꾸러미 지원

군-괴산먹거리연대사회적협동조합, 협약 영·유아 가정에 연간 48만원 상당 배송

괴산군이 다음 달부터 영유아 가정에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한다.

군은 14일 괴산먹거리연대사회적협동조합과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며 6개월 이상 괴산군에 거주한 보호자는 연간 48만 원 상당의 유기농 꾸러미를 지원받는다.

먹거리연대는 온라인 쇼핑몰 관리와 신청자에게 괴산푸드인종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군은 이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사업 홍보를 맡는다.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읍·면사무소에 월 4만 원 한도로 연간 48만 원 어치의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다. 꾸러미는 농축산물, 수산물, 과일, 가공품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14일 괴산먹거리연대사회적협동조합과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자가 필요한 품목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선택형 꾸러미'와 미리 품목을 구성해 놓은 '완성형 꾸러미'가 있다. 군은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주문 시 지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먹거리연대는 주문한 상품을 각 가정에 배송할 예정이다.

괴산군,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한다

괴산군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

우체)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며, 카드결제 및 포인트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괴산군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1천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해 3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으로 확대 지급한다. 확대된 출산장려금은 2022년 3월 25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고 출생신고 된 아동에게 지급한다.

출산 당시 부모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 이 경과된 후 지급 가능하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

청 가능하며, 출생 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숙 괴산군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 2026년까지 유지

양성평등 기반구축·안전증진 등 5대 실천과제 추진

증평군이 1일 청사 본관에서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 현판식을 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2단계 재지정을 받았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하는 등 2026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단계는 2016년 12월 도내 군 단위 중 처음으로 지정됐다.

2단계 지정으로 양성평등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

이다. 성평등 협력체계 강화, 마을단위 안전역량 증진, 주민참여형 돌봄 공동체 활성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인프라 확충 등 사업도 병행한다.

홍성일 군수는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는 발전한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구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500만원 확보... 80가구 선정해 6월부터 지급

증평군이 신혼부부에게 1년 최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장 5년 간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1억500만 원(군비 100%)의 예산을 확보했다.

내달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총 80가구를 선정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년 이내 신혼부부와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경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유사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기준은 증평군 소재 전용면

적 85m²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군 예산감사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예산감사관 인구통계팀(043-835-3142)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행복한 증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안전망 4.0포럼 개최



사회안전망 4.0 포럼에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인구절벽 극복 대책·스마트복지 구현 방안 등 논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지난달 24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사회안전망4.0 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안전망4.0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으로 지난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원희룡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패널 토론에는 구인회 서울대 교수, 김형용 동국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실장이 참여

했다.

주제발표의 첫 순서로 한양대 이삼식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은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진단하고, '국민의힘' 공약을 평가한 후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사회안전망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서 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라는 공약에 주목해 사회복지의 디지털 전환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OECD 주요 국가들의 연금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이러한 토론에서는 인구절벽 극복 대책,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세대 간 불공정을 해소하는 연금개혁 방안, 스마트복지 구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앞으로 새 정부가 이들 주요 현안을 정책으로 구체화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포럼 영상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나눔채널 공감'에서 추후 시청이 가능하다.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확대"

지하철 역사 당 1개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을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수위와 국토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

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의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할 방침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와 복지부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 위원은 "검토 과정에서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감에 장애인 돌봄 지원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인택 전문위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을 올해부

터 2024년까지 광주에서 진행한다"며 "시범 사업 평가를 통해 2025년에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해 건강보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고용부와 장애인의 유망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훈련과 교육 받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고급 직종에 들어가도록 적절한 직업훈련과 교육 받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문화부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 전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청소년 생리대 지원 내달부터 만 9~24세로 확대

만11~18세에서 만9~24세로 청소년 최대 13만명 추가

임의규정 돼 있던 여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

다음 달부터 저소득 가정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

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시행령은 저소득 가정 생리용

품 지원 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자 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다음 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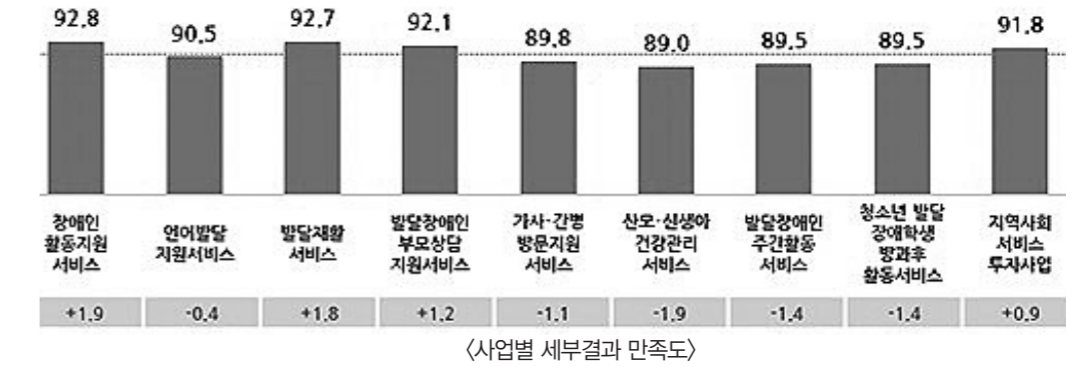
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2000원으로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지원' 자격 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회서비스 국민만족도 90.9점



전년대비 1.8점 상승... 5년 연속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등 지난해 사회서비스 분야 국민만족도가 90.9점으로 평가됐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7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시행 이후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개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이용자 1만6천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는 90.9점으로 2020년(89.1점)보다 1.8점 높아졌다.

2012년 기준으로는 79.9점으로 10년 새 11점이 올라 지난해 처음 평균 90점을 넘었다.

세부 사업별로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외부 활동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92.8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 기능 및 행동 발달을 돕는 발달장애지원서비스(92.7점),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서비스(92.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89.0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지원서비스(89.5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89.5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2020년에 이어 취약항목으로 선정됐는데, 이용자들은 공통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서비스 이용 기간을 연장해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이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용 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및 기간 연장,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관련한 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본인만 가능

자립준비청년들 보호종료 5년 후 매월 30만원 지원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을 떠나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은 13일부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

포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수당을 신청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로 도입된 복지포털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하고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

능하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한편, 보호종료 기간이 30일 이내로 남은 예정자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기존에는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로 보호종료 예정자의 사전신청이 확대돼 자립 초기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청소년보호시설협의회 출범



지난 7일 열린 충북청소년보호시설협의회 설립 총회를 갖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일시청소년쉼터·충북교육청 Wee센터 등 9개 시설 참여
가정밖 청소년 위한 제도·정책 마련 등 안전 보호 '총력'

충북지역 가정밖 청소년들의 울타리가 될 충북청소년보호시설협의회(이하 청보협)가 7일 청주, 충주, 제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청주시 복합문화공간에

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청보협 출범을 위해 청주, 충주, 제천의 청소년 전문 보호시설 9곳 시설장들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시설 가입을 늘려

갈 계획이다. 참여 보호시설은 청주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북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주일시청소년쉼터, 충주친구청소년쉼터, 충주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북교육청 남/여학생 가정형위(Wee)센터 등이다. 청보협은 가정밖 청소년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마련, 학교 내 사회성 부재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방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청소년 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등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설립 총회를 통해 초대 임원으로 배병란(충주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회장, 부회장으로 민현진(충북도교육청 여학생가정형위 Wee센터) 부회장이 선출됐다. 배병란 회장은 "아동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이 활발한데 반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약한 현실이 아쉬웠다"며 "청소년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회적 관심과 지지 속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세탁차 전달

음성군 농어촌 지역주민 편의 이용 증진 기대



한국동서발전(주)이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이동식 세탁차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주) 음성군에너지건설본부(본부장 이영찬)는 8일 음성군 신천2리 마을회관에서 농어촌 지역주민 편의 이용 증진을 위해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건용)에 이동식 세탁 차량을 전달했다. 이날 동서발전이 전달한 이동식 세탁차량은 5t 화물차에 세탁기(21kg) 6대, 건조기(16kg) 6대가 설치된 특수차량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이불 빨래와 건조가 가능하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기

증반은 차량을 통해 군 관내 9개 읍면의 고령 영농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방사는 물론 재난·재해 발생 시 수해현장 복구를 위한 지원장비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위생과 복지를 위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확산을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동서발전은 설맞이 명절음식세트를 음성군 저소득 취약계층 140가구에 지원하는 등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세광,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놀이키트' 지원

중평지역 저소득가정 81가구
자석다트·핑퐁라켓볼 등



(주)세광은 6일 중평군청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중평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750만원 상당의 놀이키트를 전달했다. 중평지역 저소득가정 81가구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중평군청 홍성열 군수, (주)세광 황미희 대표,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김민경 팀장이 참석했다. 황미희 대표는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답답했을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세광은 7일에도 괴산군청을 방문해 괴산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550만원 상당의 놀이키트를 전달했다. 괴산군에 위치한 (주)세광은 토목 및 환경 등 종합엔지니어링업체이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 권리를 기반으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아동과 사회환경의 실질적 변화를 꿈꾸는 아동옹호대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 역량 강화 나선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주)비엔티소프트, ICT 업무협약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ETRI 스타트업 기업인 (주)비엔티소프트와 ICT 기반 서비스 제공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오재훈)과 (주)비엔티소프트(대표 최인석)는 옥천군 내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ICT 역량 강화 및 생활개선 공동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ETRI 스타트업 기업인 (주)비엔티소프트와 ICT 기반 서비스 제공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포용적 돌봄을 위한 다바이스 온라인 플랫폼 개발 관련 서비스 운영, 지역 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쉽고 활용도 높은 보조공학기구 개발, 지난 7일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 ETRI 스타트업 기업인 (주)비엔티소프트와 ICT 기반 서비스 제공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협약을 통해 옥천군 내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소외된 노인, 장애인 등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 가능한 IT기기 개발 및 관련 플랫폼을 보급해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의 역량을 개발하고 포용적 돌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재훈 관장은 "ICT 기반 인프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어 농촌지역에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항상 고민했다"며 "디지털정보에 소외됐던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정보접근권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석 대표는 "옥천지역의 어르신들과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다바이스와 플랫폼을 제작·보급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19 의료인력 '격려'

청주시 보건소 4곳 등
8880만원 상당 후원키트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14일 상당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인력들을 위해 간식류와 핸드크림 등이 들어있는 후원키트를 전달했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수형)는 지난 14일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인력들을 위해 상당보건소에 방문해 간식류와 핸드크림 등이 들어있는 후원키트를 전달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후원키트 지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접종 업무 등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SK케미칼과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지원 기관은 청주시 4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 6개소이며, 지원수량은 총 1110명분(8880만 원 상당)이다.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19 대응근무로 심신이 지쳐있는 의료인력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센터장 이순희)는 충북도 내 장애인에게 적합한 IT보조기기를 제공하기 위해 2022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022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코스콤의 후원으로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와 협력하여 전국 21개의 보조기기센터 및 유관기관이 함께 수행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컴퓨터, 모바일 등 IT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학습 및 취업의 통로마련,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온라인의 교육기회 증대, 보조공학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50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며, 보조기기 노후나 신체 변화로 인한 수리 및 지원이 필요한 이전 사업 지원 대상자도 재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1인 18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바일 등 IT 정보접

근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로서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모니터, 전동 높이조절 책상 등이 해당되며, 노트북 및 태블릿, 컴퓨터, 한소네, 독서확대기 등은 신청 품목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31일 18시 까지이며, 제출서류와 신청방법 안내는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www.cbai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43-265-0401)로 문의하면 된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 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4월 25일부터 감염병 1등급→2등급 단계적 조정... “격리의무→권고”

정부가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는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전면 해제됐다. 4주간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 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대본에 따르면 3월 3주를 정점으로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된 것도 거리두기 해제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대본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아져 의료체계의 여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확인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다는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외 마스크를 해제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기존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 기존의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 등 향후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 취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외 의무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중앙상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합동으로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라는 목표 아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예방접종과 치료제, 그리고 2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①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집단적 일상회복 추진, ②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

병 관리, ③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④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⑤신종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유행상황의 확인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해 나간다.

다만, 거리두기가 해제 되더라도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을 계속 유지하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하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지만,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한다. 집단발생 및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항체조사, 인구 면역도를 평가하고, 위중증·사망 위험요인,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민·관 협력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전략을 수립한다.

유행상황에 따른 탄력적 역학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학 관련 정보를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정보수집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환자 분류를 위한 조사 역량은 감염취약시설 조사·대응에 집중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 국가 해외출입국 관리정책 전면·완화 조치 시행)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한다.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으로,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입국시 3회(입국전·입국1일·입국6~7일)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입국전·입국1일)로 축소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지방공항(22. 下)과 항만검역소(23)로 점차 확대한다.

3. 일반 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추진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간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7일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먼저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체 확진자의 99% 가량이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며,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주)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하여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원에 있어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이다.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수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중등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한다.

응급과 관련하여, 코호트 격리 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시킨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하여 차후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먼저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리두기 전면 완화		
	현행	4월18일부터
운영시간	24시	해제
사적모임	10인	해제
행사·집회	299인	해제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해제
마스크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실외 마스크 착용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실내 취식금지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취식금지	1주 간의 준비기간 4월 25일부터 해제

자료: 중앙재난대책본부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이다.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수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응급·특수 의료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며 차후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4.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피해(위중증·사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조치로서,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한다.

요양시설에서의 확산 방지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하여, 요양시설 대상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규모 발생 위험이 높으며, 감염 확산 시 피해도 크므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8월)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역시 3월(밀집·밀집·밀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

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준비 등 안내할 계획이다.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

5.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오미크론과 전파력·치명률에 차이가 있는 신종 변이 발생 또는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신종 변이를 조기 인지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를 조사·분석하고, 유전자 분석(NGS)을 강화하며, 신종 확인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다.

신종 변이 발생 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신종 변이 발생 시 발생 국가 입국을 신속히 제한하고, 입국자 검사·격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재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접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처방 가능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유행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비한다.

시·도·시·군·구, 보건소의 방역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자체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

구분	제1급감염병 (현재)	제2급감염병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 ^(4.25.~ 4.주))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격리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제 강제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자체 관리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제1급: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출처: 보건복지부·뉴스1)

복지광장

이동, 삶에 있어 품격이 달라진다

메타버스

정상화를 향한 메타버스



정찬연
충청권장애인복지관장

우리는 주변의 지인을 만나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와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기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맛집이나 커피숍을 갈 때 걸어가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등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이동을 한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이동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기에 고민을 하거나 걱정의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커다란 걱정거리로 다가온다.

한 지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누군

가와 약속을 최소화 하고 휴여 식사를 하기 위해 약속하면 이동이 자유스럽지 않아 가장 먼저 식당까지 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과제라고 한다. 다음으로 식당에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지, 휠체어에 앉아 그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식당 테이블이 입식용으로 바뀌어 다행이기는 하지만 좌식테이블이 주류였을 때에는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식당이라 하여도 입식용 테이블이 없다면, 입식용 테이블이 있어도 진입이 있어 낮은 탁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맛집이고 꼭 가고 싶은 목적지라도 눈앞에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때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한 장애인도 평생교육이 낯설지 않고 문해교육을 통해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다.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업을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늦게나마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고자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검정고시를 두 달 정도 앞두고 시험 준비도 벅하지만 주말이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에 수험장까지 갈 이동수단이 없어 걱정이란 한숨을 쉰다. 물론 복지관에서 이동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자 얼골

이 환하게 피면서 고마워했던 모습이 생생하다.

우리는 일상에 이동의 제약이 없지만 누군가가 이동 수단이나 이동에 제한을 둔다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고 당연하다고 인정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러나 장애인들은 이동에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기에 애써서 이동 방법을 찾거나 누군가에게 부탁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실천한 것을 뉴스를 통해 접했을 것이다.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위에 출근 시간에 발목을 잡는다고, 집에 있지 왜 나와서 힘들게 하나 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는 시민도, 장애인들이 출근길에 조금 불편하지만 이해가 된다는 시민도 있었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동에 선택지가 없어도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라고 할 수 없다.

일상생활의 전제조건인 이동은 단순히 어디를 가고 오는 것만이 아닌 삶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할 때 이

동할 수 있다는 것, 원하는 방법으로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이동은 대인관계의 폭이 달라지고 생활 범위가 넓어진다.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인해 직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즉, 이동에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립생활 등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삶의 품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을 장애인들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갖고 장애인도 당연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체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배리어 프리(무장애거리)로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에 있어 친화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도 장애물 없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나동석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서울에서 지하철 시위가 지속됐다. 장애인이 출퇴근할 때,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몸으로 표현했다. 이유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시민단체가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권리예산의 반영을 요구한 것이다.

늦은 오후, 청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 적이 있었다. 터미널에 하차 후 지하철로 이동해 교대역에서 노선을 갈아타려고 하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 차례를 보낸 후어나 내가 탈 수 있으리라고 짐작했다.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마침 방송으로 장애인의 시위로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만 여러 차례 들려올 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다. 평상시처럼 긴 줄 끝을 찾아가는 사람들, 열차 도착시간이 궁금해서 얼굴을 쪽 쪽 전광판을 자주 보는 사람들, 출구로 나가 버스로 갈아타고 갈 것이라고 전화로 통화하는 사람들, 왜 퇴근시간에 시위를 하는지 하고 불만을 보여주는 사람들 등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장애인들이 시위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다.

4월이 되면 장애인의 날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장애인을 더 생각하게 한다. 장애인을 생각하면 복지이념으로 정상화(normalization)의 원리를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가 점차적으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단단해지는 사회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궁극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의 구축과 모든 사람들의 삶이 서로서로의 일상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의 조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상화의 원리는 1950년대 후반 덴마크의 정신지체장애

부모들은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수용시설에서 인간이므로 처우 받는 생활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신지체인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들이 시설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함께 갖도록 하는 정상화의 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통계적인 다수가 사용하던 수단은 문화적으로도 정상적인 것이고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경험시켜 정상성(normality)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요구는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정상성을 갖도록 권리를 주장하는 바일 것이다. 지난 3월말에 열린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인수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 범위는 인공지능에서 메타버스까지라고 보도되었다. 인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전 정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 꼭 가야 할 길을 찾은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는 분과별 토론회에서 성장과 복지의 관계도 논의하면서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를 미래세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방안을 계획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활성화에도 집중되길 기대한다.

정상화의 원리에 따라 시도되는 탈시설화, 장애인의무고용, 편의시설화 등의 사업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성장으로 집중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상화를 향한 장애인 사업들은 메타버스가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메타버스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AR, VR, XR 등의 기술이 앞으로 현재보다 더 실감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가능해진다.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한 장애인의 생활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빛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메타버스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적합한 국가인 한국은 기술력으로 5G의 뒷받침이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가능하고 애개발을 위한 생태계도 조성되며 콘텐츠관련 크리에이터와 개발자의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메타버스사업의 디지털 전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이동과 연계해서 편의와 대안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상담수준에서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

복지와 상담 그 사이에서



이지영
충청권교육센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심리상담, 임상심리 분야는 '휴먼서비스'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이러한 분야의 종사자들은 아마도 인간사에 대한 관심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열의가 있고, 누군가를 도우는 관계에서 오는 보람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에 학과는 나뉘어져 있다. 교과목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학문과 이론을 서로 배우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각 직업이 가진 가치와 비전, 역할과 수행임무는 분명히 다르다. 그렇기에 '유사 학과'라는 말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디지털타임스, 2011년 6월에서 "각 계열 자율적으로 유사 학과의 통합과 융합을 이끌어 내 미래 학문 수요에 대응한 학사

조직의 특성화와 융합 학문 시대에 맞는 교육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라는 '학사 조직'에 대한 내용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유사하다.

나는 약 7년의 시간동안 비슷한 경력에 비해 다양한 복지기관을 경험했다. 나의 성향과 성과는 이 직종에 잘 어울린다고 보지만, 현재 진로를 고민 중이다. 그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서비스의 한계, 직업적 전문성의 약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잦은 소진, 형식적인 기록 혹은 지출 등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한 걸음 멈추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과 문제 발견'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상담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그에 능통하지 못한 사회복지사는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 자원을 연계할 때 어쩌면, 과녁의 중심에서 벗어난 상태일지 모른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손에 닿는 쉬운 자원을 대충 연결해주고 종결하거나(책임을 타기관으로 넘기거나), 해결에 대한 열정으로 개인적, 심리적 원리는 물론 채 영동한 곳에 초점을 두거나, 상담 시 채워져야 하는 심리적 에너지들을 소홀히 한 채 그들의 어려움을 연장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아동·청소년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심리와 복지라는 두 가지 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상담심리 전문가는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미세하고도 개인적인 분야에서는 심층적인 분석 및 치료전략을 제시하고, 역량을 발휘하지만, 내담자의 심리적 갈등을 부추기는 사회복지 문제 등 환경적이고 거시적인 분야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꾸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은 높지만, 대상자의 타고난 기질과 생물학적인 요소를 파악하거나 인간 심리라는 내밀한 부분까지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담심리와 사회복지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전문가들에 대한 욕구가 많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사회복지사도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상담전문가도 내담자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는 두 직업이 특히나 상호보완적이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한 개인을 깊이 이해하는 심리상담과 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사회복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마치 병원에서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만능'이어야 할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능'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과 기술을 다른 기관, 다른 전문가에게 연계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포인트였다. 즉, 연결된 자원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다재다능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다각적인 안목(관점)을 요한다. 사회복지사의 주업무인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 외에도 회계, 총무, 인사관리, 홍보포스터 디자인 및 제작, 영상 촬영 및 편집, 자원봉사자 양성, 시스템 및 행정업무로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상담까지 명확하게 해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일 것이다.

이는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라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상담을 공부하는 일이라는 결론이 났다. 물론 석·박사 이상의 고급 상담전문 인력을 따라갈 수는 없어도 기본적인 준비라도 해놓자는 것이다. 상담 및 심리 관련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사회복지 전공자의 필드 영역을 더 넓혀가고자 한다. 사회복지 영역에 이해를 갖춘 상담심리사는 더 온전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말이다.

더 많은 수련과 경험이 필요하기에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 한다.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개인을 효과적으로 돕고, 앞으로의 시대에 대체될 수 없는 인력이 되고 싶을 뿐이다. 이를 위해 '인간다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똑똑똑! 법률상담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 서비스

법률상담 서비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이 딸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

Q. 몇 달 전 저는 사소한 일로 연정을 하다가 지인에 대해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지인은 바로 저를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결국 며칠 전 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A. 우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만약 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한 후 벌금미납으로 집행수배가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위해서는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관할 지역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검사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납부나 연기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참조).

만약 위 신청에 대해 검사가 허가하면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분할납부나 연기가 가능하고,

추가로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관할 검찰청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 상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1.7.부터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위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하여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 시 환산 시간은 400시간이 됩니다.

복지정보 제공

[Mn문화복지재단] 소년 꿈지원 사업 22년 드림프로젝트 8기 모집

- 사업대상: 나만의 특별한 재능을 통해 꿈을 향해 나아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청소년, 중3~고2 청소년(2022년 기준) 중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진로가 정해진 청소년
- 지원영역: 예술 관련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체육분야 제외)
- 지원내용: 진로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등
- 지원금액: 1인당 총 300만원까지
- 지원기간: 6개월(6~11월)
- 제출서류: 본 재단 홈페이지(www.mnjfoundation.org) 참고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dream@mnjfoundation.org)
- 접수기간: ~2022.5.15.(일) 24시까지
- 결과발표: 2022.6.7.(화)
- 문의: 02-499-0311 또는 dream@mnjfoundation.org

[푸르메재단X현대모비스] 2022 장애아동이동 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항목: 장애아동 보조기구
-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청소년
- 품목: 맞춤형 보조기구(현물)
- 지원규모: 1인 최대 250만원
- 신청기간: 2022.4.1.(금)~5.20.(금)
- 선정: 6월 중
- 보조기구 납품: 7월 이후
- 참고: http://purme.org/

[청주시가족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가족애(愛) 행복+' 모집 안내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손)자녀를 둔 저소득가정(한부모, 조손, 미혼모부자, 북한이탈가족, 청소년부모 등)과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등의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기간: 등록일로부터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가정의 욕구에 맞추어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긴급위기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여성 한부모가정 자조모임,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주거 및 직업고용 등의 정보제공 등 지원
- 신청기한: 연간 상시

■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참고: <https://cjfc.familynet.or.kr>

■ 문의: 사례관리팀(043-295-1817)

[코아드] 코아드 자문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으로 문의 가능

[여성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부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함께독서 공지사항 확인 - 신청양식 확인 - 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4,000~5,500원 / 지역에 따라 요금 상이)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02-553-3488

[KT&G복지재단] 2022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 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 → 선정발표(매월 마지막 주) → 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 → 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 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 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ktnwelfare.org) 참조

[KT&G복지재단] 2022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20일, 연중상시진행
- 신청대상: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만7세 이상~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습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 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 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 신청(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ktnwelfare.org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 2585

[희망나눔 주주연대]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정(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인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자원 봉사자 모집

- ▶ 스마트기기 사용법 안내 상담
관리센터: 청주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36-0111
- ▶ 주방봉사(설거지)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75-7411
- ▶ 사무업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65-0401
- ▶ 이동방과후교실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36-3600

- ▶ 무료급식 봉사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855-3011
- ▶ 학습정서 멘토링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857-5960
-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해피하우스다솜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856-4001
- ▶ 학습지도 봉사
관리센터: 동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73-5075

- ▶ 도시락 배달 봉사
관리센터: 청주우암시니어클럽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56-0224
- ▶ 기증품 접수 등 행정보조
관리센터: 아름다운가게 청주신봉점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21-001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봉우회, 중앙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중섭) 소속 봉우회(회장 김중섭)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한지 1년만에 봉사활동

을 진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봉우회는 2010년 9월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 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STARBUCKS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음의 함께 하트-하트재단

커뮤니티 스토어 3호점과 함께하는

제2회 스타벅스 텀블러 그림 공모전

응모기간: 2022년 4월 12일(화) ~ 5월 13일(금)

스타벅스는 전 세계 최초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강화한 포괄적 디자인이 적용된 매장인 '서울대지과병원점'을 지난 12월 '커뮤니티 스토어3호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장에서 판매되는 아이템 당 300원의 기금을 적립해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본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BETTER TOGETHER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치있는 실천"을 표현하는 그림

시상내역

구분	인원	상금
대상	1명	3,000,000원
금상	2명	1,000,000원
은상	5명	500,000원
동상	5명	100,000원
장려상	10명	50,000원

수상작 활용처

• 온/오프라인 적용 전시 및 장애인식개선캠페인 활동
• 상품 수납작품, 스타벅스 텀블러 디자인(비매출) 및 매장 인테리어 적용 가능

응모자격: 청년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2022.04.12 기준))
* 단, 2021년 진행된 제1회 공모전 수상자(대상 이상)는 응모 불가

응모분야: 그림

• 규격: 4절지(393mm x 545mm)
• 소재: 자유
• 그림의 의미를 표현한 메시지 30자 이내

응모방법

-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및 작품 원본
- 제출 방법: 참가신청서: 네이버폼 신청서 제출 (링크: <https://naver.me/5HLMWVW>)
• 작품 원본: 우편 제출 (마감일자 우편소인까지 발송/동기우편)
- 제출처: (05824)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23길 34 하트-하트재단

공모전 일정

• 작품 접수: 2022.04.12.(화) ~ 2022.05.13.(금)
• 작품 심사 및 수상작 발표: 2022년 5월 예정
• 시상식: 2022년 6월 예정

문의 | 하트-하트재단 공모전 사무국 02-430-2000(내선:7954, 7945) | 이메일: heart@heart-heart.org

*타기관 공모전 또는 역대 공모전 수상 작품은 접수 불가하며, 대량 또는 작품 표절이 확인될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작품의 배송 및 전시, 전시 중 작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세부사항은 하트-하트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www.heart-heart.org)

복지/만/평

날씨 이창신 www.bokmani.com



날씨는 변해야 하고...

기후는 변하면 안 됩니다.

날씨가 변하지 않거나 기후가 변하면 재해가 발생합니다.